光州日報

광주 -4/5℃ 목포 10/19℃ 여수 12/20℃

단기 4345년 (음력 12월 13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9141호 1판 2012년 1월 6일 금요일

광주비엔날레 성공뒤엔 열정의 IT 천재 박건희 있었다

〈Daum 공동 창업자〉

1회 대회 돕다 과로사…유족들 추모사업·교류방안 논의

고(故) 박건희씨의 누나 서현·은숙씨가 5일 광주비엔날레재단을 찾아 이용우 대표이사와 이야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가 태동한 1995년, 탁월한 감수성과 예술에 대한 정열로 똘똘 뭉친 20대 후반의 젊은이가 있었다. 광주비엔날레 세계화를 위해 젊은 열정을 불태운 고(故) 박건희씨(사진).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한 박씨는 예술과 문화에 대한 폭넓은 관심으로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을 현 이재웅 대표이사 등과 공동 창업했다.

그는 인터넷 전문업체 'Daum'이 새로운 형식의 가상공간 갤러리(Virtual Gallery)를 운영해 일약 인기사이트로 떠오르자, 광주비엔날레를 세계에 알리는 창구로 삼았다.

제1회 대회가 시작되자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전시와 행사 실황을 24시간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세계 미술계의 주목을 이끌어냈다. 건강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뜬눈으로 지새운 날도 많았다.

강원 춘천 출신으로 광주 사람보다 비엔날레를 사랑했던 그는 심장마비로 29세의 생을 마감했다. 제1회 광주비엔날레 개막 한 달여만의 일이다.

5일 오전 박씨의 가족이 생전 박씨가 그토록 열정을 불태웠던 현장인 광주비엔날레재단을 찾았다. 16년이 지났지만 동생의 흔적을 확인하고, 자신들이 이사로 있는 박건희문화재단(이사장·구본창)과 추모행사, 교류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광주비엔날레재단을 찾은 박씨의 둘째·넷째 누나 은숙·서현씨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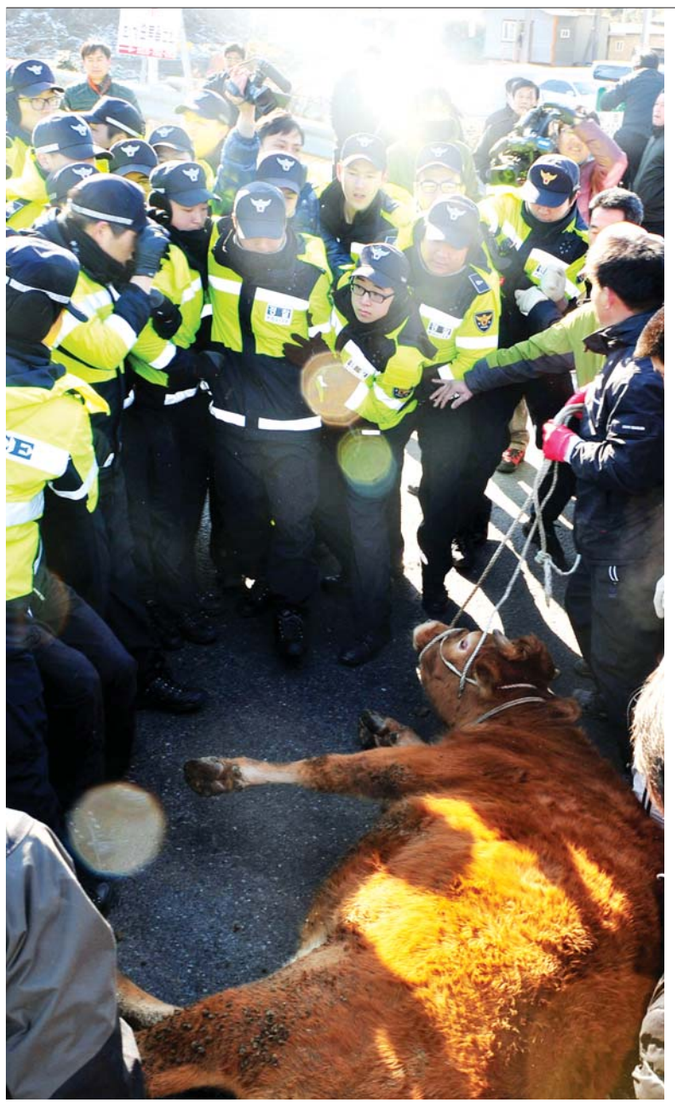
당시 전시기획팀장으로 박씨와 함께 일했던 이용우 대표이사를 만나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며 동생을 기렸다.

동생이 그리워 가끔 가족과 함께 광주를 찾는다는 서현씨는 제1회 광주비엔날레 선언문과 현판의 후원자 명단에 동생의 이름이 올라 있었던 것을 기억해내며 "동생이 마지막까지 열정을 불태워 일했던 곳이기 때문에 광주비엔날레와 광주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우 대표이사는 "당시 생소했던 IT분야에 예술을 접목했던 '젊은 활동가' 박건희씨를 잊을 수 없다"며 "실시간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 예술의 세계화를 실현해 보이겠다고 장담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박건희문화재단 박영미 학예연구실장이 배석해 박건희 추모사업과 광주비엔날레재단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박영미 실장은 "박건희를 기리는 추모행사는 물론 사진교육, 문화행사 등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며 "박건희를 기리는 뜻을 공감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대표이사는 "박씨가 광주비엔날레의 세계화에 공이 큰 만큼 어떤 식으로든 그 뜻을 기리는 행사나 사업을 재단이 나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5일 순천시 서면 호남고속도로 순천IC 진입로에서 한우값 폭락에 항의해 상경하려는 한우협회 순천지회 회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밀고 당기는 와중에 한우 한마리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1만원 송아지' 대책 세워라

축산농 200여명 소값 폭락 항의 전남도청앞 시위

축산 농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소값으로 축산업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내몰리면서다. 급기야 평생을 키워온 소를 반납하겠다며 도심에 내다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국 한우협회 광주·전남 시도지회 소속 축산농민 200여명은 5일 무안군 남악신도시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한·미 FTA로 인해 소값이 폭락하면서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축산농가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미 FTA 때문에 축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최근 소 값 폭락은 FTA로 인한 암울한 전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이맘때 510만원에 달했던 암소(600㎏)가격은 현재 380만원에 불과하고 4~5개월령 암송아지도 전년(170만원)에 견줘 80만원이 떨어진 90만원에 거래되는 형편이다.

이들은 "소 값 폭락과 사료 값 폭등으로 농가는 물론 소들도 죽어가고 있다"면서 FTA 비준 폐기와 소 값 인상, 사료 값 안정화 대책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일부 축산 농가들이 소 값 폭락 등에 항의하는 뜻으로 소 5마리를 끌고 와 이중 1~2마리를 전남도청 청사 앞 잔디 광장에 풀어 놓기도 했다.

이들은 앞서 소를 끌고 서울에서 열리는 한우 반납 시위에 참여하려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되자 광주 광산IC·영광IC·순천IC 등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도청에서 집회를 가졌다.

한편, 전남도는 산지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한·육우 농가를 돕기 위해 설 명절을 전후해 암소한우갈비 선물세트 할인판매를 진행하는 한편, 젖소 수송아지 긴급 수매·군납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나라 '전대 돈봉투' 파장

고승덕 의원 폭로…비대위 검찰 수사 의뢰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18대 국회에서 치러진 한 전당대회에서 전직 대표 중 한 명이 '돈봉투'를 돌린 적이 있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일단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사태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으나 쇄신과 종선 국면을 맞고 있는 여당으로서는 초대형 악재를 만난 셈이다.

고 의원은 5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 중 한 명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봉투가 온 적이 있어서 곧 돌려줬다"며 "결국 그분이 당선됐는데 그분과 돈봉투를 전한 분이 같은 친이(친이명박)계에다 자신을 지지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싸늘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돈봉투를 줬던 친이계 전 대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하지만, 지금껏 의혹 수준에 머물러 있던 전당대회에서의 대의원 매수 행위의 실체가 일부 드러나면서 한나라당 지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근혜)는 이 사건이 정당법 제50조의 '당 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수사를 전격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알 림

'테마칼럼' 필진 바뀝니다

매주 금요일 연재하는 '테마칼럼'의 필진이 새롭게 바뀝니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새 필진은 건강과 생활, 호남의 문화, 성 바로알기, 법과 질서 등 4가지 테마의 세계로 독자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변함없는 성원 바랍니다.

김석주 이사장

조현종 관장

양동옥 관장

조만형 교수

◇김석주(73) 향원당 이사장

▲전남대학교 국문학과 졸업·동대학원 석사 ▲전남여고·광주일고 교사 ▲임자종합고등학교 교감 ▲교육청 장학사 ▲구례고등학교 교장 ▲한국전통문화교육원 향원당 이사장

◇조현종(56) 국립광주박물관장

▲전남대 사학과 졸업 ▲광주박물관장 ▲국립제주박물관 초대관장 ▲초대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추진기획단 전시과장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국립광주박물관장

◇양동옥(41) 건강과 성 박물관장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졸업, 동대학원 심리학박사 ▲교육인적자원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원 ▲전남대학교 성의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조만형(52) 동신대 교수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조선대학교 대학원 졸업 ▲동신대학교 인재 육성관장 ▲전남도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광주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

光州日報社